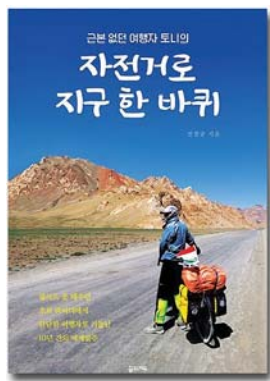




‘60대 청춘’ 자전거로 세계 일주

제주 출신 진철규 에세이
2019년 미국 대륙 횡단에서
최근의 아프리카 종단까지
“시니어에 용기·희망 되길”
오는 23일 제주 출판 기념회



진철규 작가가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모습.

출판사 제공

신문사에 도착한 신간을 펴니 맨 앞장에 저자가 친필로 적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건강, 열정, 도전하는 용기. “왜 그 나이에 고통스러운 길을 가느냐.” 주변의 이런 물음에 그는 어느 시인의 구절을 빌려 답하곤 했다. “꿈을 따르기 위해 확실성을 불확실성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평크도 못 때우던 초보 라이더였던 그는 미국을 시작으로 북위 40도를 따라 자전거로 세계를 일주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그의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제주 출신 진철규의 여행 에세이 ‘근본 없던 여행자 토니의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 (꿈의지도 출판사)다.

1957년생.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때 세계를 무대로 뛰는 세일즈맨이었다. 50세에 경제적 은퇴를 선언하고 2010년 자전거에 입문해 이른바 ‘국토 종주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내 인생에 접 하나를 찍을 수 있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절실했던 시점”에 그는 미국행이라는 “무모한 도전”에 뛰어들었다.

저자는 여섯 개의 장으로 나눠 자전거로 다닌 세상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했다. 2019년 4월 15~8월 4일 미국 대륙 횡단, 2022년 4월 23~7월 4일 유라시아 횡단, 2023년 5월 25~7월 22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와 파미르 고원, 2024년 5월 22~7월 8일 몽골 고비 사막 종단, 2024년 12월 2~2025년 1월 26일 남미 파타고니아, 2025년 10월 27~2016년 4월 11일 아프리카 종단 순으로 펼쳐진다.

그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았지만 때로는 폭염과 강풍, 비포장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겪었다. 그런 과정을 헤치며 단단한 여행자로 거듭났다.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험준한 고개가 앞을 가로막아도, 혁거하리는 나의 거친 호흡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략)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그 길에서 걸어 올린 문장의 일부다.

페달을 밟은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처럼, 그는 느리지만 정직한 속도로 세상을 배워가는 중이라고 했다. 침수를 바라보는 “60대 청춘의 몸으로 쓴 기록”을 두고 저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며 삶의 길 위에 섰 못 나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청춘과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23일 오후 5시에는 제주시 간드락 북카페 (간월동로 12)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책동네

제주문학·제주작가 여름호
계간문에 다층 여름호도 발간
제주아동문학 45번째 창작집



제주 문학 단체들이 계간지, 연간지 등으로 그간의 결실을 묶었다. ‘제주문학’ 2026 여름호에서 ‘해향문학’ 2026년 상반기 작품집까지 나왔다.

▷제주도문인협회 ‘제주문학’ 여름호(통권 107집)=‘테마-제주문화 톨아보기’에서 오름의 자생 식물을 다뤘다. 오름을 탐방하며 제주 자생 식물의 가치를 조명한 김찬수 박사 외의 대담(조소형), 시(이소영·박재형), 동화(고명순), 수필(김백운·오인순)로 특집을 꾸렸다. 회원들의 시·시조·제주어문학·소설·수필·아동문학·희곡도 빼곡하다.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여름호(통권 93호)=제주 4·3 78주기 제주사월문학제 심포지엄 발표문 세

편으로 특집 ‘사월의 기억, 문학으로 잇다’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경아 강원작가회의 회원의 글을 더해 기억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새로 마련한 ‘제주어문학’ 지면엔 김정숙·김강신·김창집의 작품을 소개했다. 시·시조·단편소설·단편동화 등 회원 신작도 있다.

▷‘계간문에 다층’ 여름호(통권 110호)=기획특집 ‘섬, 시의 실크로드를 가다 V’ 편에 이화영의 ‘물, 존재의 본질로 회귀하는 소멸과 생성의 표상’을 실었다. 젊은 시인 7인선, 젊은 시조시인 3인선, 계간평(시), 해외시단 산책(몽골의 시인들), 다층소시집(김나영), 다층산문 등도 담았다.

▷제주아동문학 45집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팡이’=제주 아동문학의 산실인 제주아동문학협회 연간 창작집. 표제작은 오수선의 동화다.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길을 지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렸다. 이를 포함 자연과 풍경,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 생명들과 일상의 장면이 있는 동시·동화 등 회원 작품 79편을 수록했다.

▷‘해향문학’ 2026년 상반기(통권 26호)=불교와 문학을 인연으로 창립한 해향문학회(전 제주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모았다. 강규진 시인 추모 특집, 대담, 문인 초대석, 회원 작품, 사찰 탐방으로 구성했다.

진선희기자

이도우 소설가 초청 특강
내달 5일 제주문학관 강당

제주 배경 장편소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를 쓴 이도우 소설가가 제주 독자들과 만난다. 제주문학학교의 2026 도민문학학교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주 문학관 대강당에서 ‘인생의 계절을 지나는 방법’을 주제로 특강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계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작가가 자신의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들려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50BC3BIY)이나 전화(070-4115-1038)를 이용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영상 세트 제작 이론에서 실습까지 익힌다

콘텐츠진흥원 첫 실무 교육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활용
도민 10명 모집 무료 운영

제주도민들이 영상 제작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무 기능을 익히는 교육이 무료로 열린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마련한 ‘2026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프로덕션 디자인 실무 교육’이다.

5일 제주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내 영화·영상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다.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를 교육장으로 활용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세트 제작과 프로덕션 디자인 실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제주 최초의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40시간 과정이다. 수강생들은 영화 기초 이론과 시나리오 공간 분석, 목공 빌드 기초 등 이론과

정을 거쳐 가벽 제작, 특수 도색, 질감(텍스처) 마감 등 세트 제작에 나선다. 마지막엔 교육생들이 직접 구축한 세트에서 스튜디오 촬영과 조명 연출을 실습하며 실제 프로덕션 단계를 완성한다.

영화 ‘장화, 홍련’의 김영 프로듀서, ‘태극기 휘날리며’의 신보경 미술감독, 디즈니 자회사 훌루(Hulu) 시리즈 ‘디액트(The Act)’의 로렌스 김 미술감독 등 국내외 현장에서 활약 중인 이들로 강사진을 꾸렸다. 다만 신보경 미술감독 강의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영화·영상 미술 분야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과 도내 대학 재학생 등 10명.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참고.

진흥원은 이 교육을 통해 제주로케이션 제작팀의 현지 보조 인력 수급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의 채상균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도내 인력이 실제 영화·영상 제작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아이들과 만나는 석주명·부종휴의 열정

민속자연사박물관 테마전
관찰·기록 활동 체험 전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주에 머물렀던 나비 연구자 석주명(1908~1950)과 제주 출신 식물학자 부종휴(1926~1980)의 삶과 연구 활동을 다룬 체험형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인 제2전시실 출구 복도 한 편에서 진행 중인 ‘제주의 자연을 돌아본 아이들’ 테마전이다.

지난 4일 시작돼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이번 테마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가까이하며 끊임없이 관찰했던 두 연구자를 소개하고 있다. 두 인물이 제주의 자연을 직접 걷고 관찰하며 질문하고 기록했던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석주명, 나비를 통해 제주를 기록하다’ 공간에선 우리나라 나비의 종류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 활동과 함께 자연·언어·풍속·역사·생활 문화 등을 조사해 ‘제주도총서’로 남긴 기록 활동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나비의 구조와 표본을 관찰하고 나비 종이접기에 참여하며 석주명의 관찰·기록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부종휴, 식물을 통해 제주를 발견하다’ 공간은 한라산 등 제주 곳곳을 답사하며 식물의 형태와 분포, 생육 환경을 조사한 부종휴의 연구 여정을 담았다. 관람객은 왕빛나무, 한산이슬새, 둥굴 탐험을 소재로 한 탁본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완성한 기록지는 가져가거나 전시장에 걸어도 된다.

진선희기자

미리가는 주말 1박2일 가을여행

전남 (순창,구례,순천) + 경남 (하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광주공항 도착 - 순창 체재산 출렁다리
- 중식 - 구례 사성암 -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 석식
-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호텔 체크인 후 조식 - 하동 삼성궁 - 중식
- 최창면역 관광 - 하동 화개정다 -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399,000원 **3인1실 395,000원** **4인1실 39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9월 5일, 12일, 19일
*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마지막 바캉스 1박2일 쿨링여행

청주+단양+충주+제천

더위는 날리고 힐링은 가득! 시원한 여행지에서 즐기는 특별한 1박2일!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청주공항 도착
청풍 나루 크루즈 단양 고수동굴 단양 강전도

2일차
조식(호텔식) - 단양 구인사(천대종 총본사)
단양 온달동굴 - 본초다담(죽목 한방체험) 청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49,000원 **3인1실 445,000원** **4인1실 44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9월 5일, 12일, 19일 *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추석/개천절 연휴 힐링가득! 1박2일 감성여행

전남 (순창,구례,순천) + 경남 (하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광주공항 도착 - 순창 체재산 출렁다리
- 중식 - 구례 사성암 -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 석식
-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호텔 체크인 후 조식 - 하동 삼성궁 - 중식
- 최창면역 관광 - 하동 화개정다 -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39,000원 **3인1실 435,000원** **4인1실 43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9월 26일 / 10월 3일 (단 2회)
*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추석/개천절 연휴 힐링가득! 1박2일 힐링여행

청주+단양+충주+제천+정선

청풍 나루 크루즈 단양 고수동굴 단양 강전도 구인사(천대종 총본사) 온달동굴 본초다담(죽목 한방체험)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청주공항 도착
청풍 나루 크루즈 - 중식
단양 고수동굴 - 단양 강전도
석식 - 정선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조식(호텔식) - 단양 구인사(천대종 총본사)
중식 - 단양 온달동굴
본초다담(죽목 한방체험)
청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출발일 10월 3일 단1회
왕복항공료(유류세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여행자보험

*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